

광주·전남 상장사 ‘주총 시즌’

내일 광주신세계 시작으로

23일 화천기공·조선내화

한전·한전KPS·금호건설 등

사외이사 선임·주주가치 제고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올해 지역 상장기업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과 주주가치 제고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22일 광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광

주전남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3일에는 화천기공과 조선내화가, 28일에는 한국전력과 한전KPS, 금호건설, 남화토건, 고려시멘트가 주주총회를 연다.

29일에는 보해양조, 30일 금호타이어, 31일 부국철강이 주주총회를 갖는다.

특히 올해 광주신세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에 의해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배일성 회계사를 추천하고 배당금으로 주당 3,750원을 제안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한동연 전 광주국제청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배당금으로 주당 2,200을

제시했다.

광주신세계 최대주주가 지분 62.5%를 소유한 신세계이기 때문에 신세계 의견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화천기공은 올해 주총에서 정성창 전남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고 보해양조는 김준 경방 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금호타이어는 구한서 전 중앙생명보험 대표이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고, 남화토건은 신규 사외이사로 김성후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선출하고 상근감사로 노정재 상근감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한전KPS, 금호건설, 부국철강도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의결한다. /오지현 기자



농협광주본부는 20일 동곡농협에서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대출’ 상품 출시행사를 개최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1조원 한도 농촌 저금리대출 출시

농협광주본부는 20일 동곡농협에서 ‘함께하는 100년 농촌 저금리대출’ 상품 출시행사를 가졌다.

영농자금 저리 지원을 통한 영농기반 확보와 농업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출시된 이 상품은 농업인 조합원, 청년창업농,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저 연 3%대의 저금리 ▲1인당 최대 5,000만원 ▲2년 이내 기간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농업인 2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330억원 규

모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의 대한대출도 가능하다. 1조원 한도로 한시 판매되며 한도 소진 때 판매 종료된다.

고성신 농협광주본부장은 “금리상승에 따른 영농자금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광주은행 소속 ‘텐텐(Ten Ten) 양궁단’은 사회복지법인 용진원 어린이 40여명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봉사활동인 ‘웰니스 재능나눔’을 실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 웰니스 재능나눔

어린이 40여명 대상 양궁 체험

광주은행 소속 ‘텐텐(Ten Ten) 양궁단’이 사회복지법인 용진원 어린이 40여명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봉사활동인 ‘웰니스 재능나눔’을 실시했다.

텐텐 양궁단은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 균형잡기에 도움을 주고자 ‘웰니스 재능나눔’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두 달간 광주여자대학교 양궁체험장에서 사회복지 용

진원 어린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궁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양궁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앞두고 바쁜 훈련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양궁의 이론부터 기본자세 및 활쏘기 등을 지도했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선의 경쟁 속에서 협동심과 집중력, 인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법인 용진

원에서는 “책상에 앉아서만은 터득할 수 없는 값진 배움을 얻었다”며 호응을 보였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 선수들의 재능 기부로 지역 내 소외계층 어린이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민의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텐텐 양궁단’과 시너지를 발휘하며 체계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기아, 신차 출고 장기대기 고객 보답 나선다

‘베네핏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독서·음원·영상 등 맞춤형 선택

기아가 오랜 시간 신차 출고를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객 보답 프로그램 ‘기아 베네핏 플러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아 베네핏 플러스는 180일 이상 신차 출고를 기다린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아는 기존 장기대기 출고 고객 케어 프로그램 ‘기다림, 감사 케어’ 보험 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아 베네핏 플러스는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생활 밀착형 구독 서비스 옵션을 제공한다. 서비스 옵션은 ▲중기 대기(180일~269일) ▲장기 대기(270일~365일) ▲초장기 대기(366일~) 기간에 따라 구독 기간 및 선택의 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되는 구독 서비스로는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 ‘리디 셀렉트’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 ▲방송, 영화, 해외시리즈 등 영상 콘텐츠 서비스 ‘웨이브’ ▲EPL, 골프 등 프리미엄 스포츠 OTT ‘스포티비나우’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정기구독 서비스 ‘어글

리어스’ 등이 있다. 고객은 이중 자신의 대기기간 등급에 맞는 혜택 1개를 골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366일 이상)한 초장기 대기 고객에게는 구독 서비스 신청 시 기아 브랜드 패키지까지 더해 있는 꽃다발도 추가로 증정한다.

기아 베네핏 플러스는 올해 12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올 3월 2일 이후 차량 출고 고객 중 전기차와 봉고를 제외한 차종을 출고, 대기기간을 충족한 고객에 한해 출고 후 90일 이내 ‘마이기아(MyKia)’ 앱을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4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부문은 포스터, 영상, 카드뉴스이며, 참가 제한은 없다. 공모 주제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가치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중소기업 취업 후기 ▲중소기

업 취업을 꿈꾸는 나의 이야기 등이다.

참가자는 내달 21일까지 신청서 및 작품을 이메일(insik9988@kbiz.or.kr)로 제출해야 하며, 참가 신청서는 참 관장은 중소기업(www.gsmb.mss.go.kr),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문에서 대상을 포함해 총 15점을 시상

하며, 시상식은 중소기업주간(5월 15~19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초석이었던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우리나라와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이 언제나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금호타이어, TCFD 지지 선언

타이어 업계로서는 국내 최초

관련 재무정보 투명하게 공개

금호타이어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지지를 선언했다. TCFD는 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설립한 협의체다.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목표관리 등 정보를 공시하고 조직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세계 95개 국가의 약 3,400개 기업 및 기관이 TCFD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내 타이어 업계로서는 금호타이어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금호타이어는 앞으로 기후변화 관

련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금융 리스크를 경영에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TCFD 권고안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한국TCFD얼라이언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TCFD 지지 선언을 계기로 내년에 별도의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전환 리스크와 기회를 경영전략에 통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